



연합뉴스 바로 세우기 동참 한 달

33기 “연합뉴스 봄 올 때까지 계속 투쟁”

※편집주 주: 2011년 11월에 입사한 33기들이 파업에 참여한 지 3일로 한달이 됩니다. 소위 ‘사스마와리’를 마치고 취재 일선에 배치되자마자 선배들이 파업으로 현장을 비운 탓에 홀로 고된 노동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수습신분을 벗어나자 심사숙고 끝에 파업에 동참, 투쟁 대오에 새 바람을 불어 넣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운 이들이 파업 한달간 보고, 듣고, 느꼈던 것들이 남달랐으리라 생각합니다. 노보는 이에 이들의 목소리를 충실히 담아내고자 오늘자 면을 통째로 이들에게 할애했습니다. 33기들이 직접 기사 아이템을 선정하고 취재하고 작성해 ‘파업 호외’를 작성한 것입니다. 이들의 제작한 노보에서 새내기 조합원들이 파업을 바라보는 시선, 투쟁속에서 느끼는 고민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기수 호칭을 자제하자는 조합원들의 뜻에 동의하지만 기사의 편의상 33기로 쓰는 것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연합뉴스 바로 세우기’ 파업이 50일째 이어지던 5월3일 오전 9시, 센터원 빌딩 동관 7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새로운 얼굴들이 나타났다. 이들은 주위가 생소한 듯 두리번거리다 다른 조합원들과 눈이

마주치자 수줍은 듯 고개를 숙였다. 익숙한 얼굴을 본 몇몇은 미소를 지었고 반가움에 손을 끌어 잡기도 했다. 선배들 없는 취재현장을 전전하던 연합뉴스 33기가 파업에 동참해 사장실 앞 집회에 처음 출석하는 역사적 순간이었다.

“파업 참여가 회사 정상화를 앞당기는 방법”

지난해 11월1일 입사한 33기는 수습 종료 직후인 지난달 3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이들은 파업 합류 배경을 설명하는 성명서에서 “(선배들이 파업으로 부재한) 열악한 취재 여건에서 무언가를 배우기보다는 기계처럼 일만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연합뉴스를 가장 오래 지켜나갈 막내 기수로서 파업 참여가 회사 정상화를 앞당기는 방법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누구의 지시도 강압도 아닌 스스로 내린 결정이기에 33기의 파업투쟁은 굳건할 것”이라며 “후배들이 연합뉴스의 오롯한 기자가 될 수 있도록 박 사장과 선배들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33기의 한 조합원은 “성명서를 작성할 당시 모든 동기들이 노·사측 선배들의 이야기를 동시에 들으

며 많은 고민을 했다”며 “신입사원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월급도 받지 못하며 뜨거운 별 아래서 투쟁하는 선배들 모습을 보고 파업엔 분명히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 동참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러나 평 조합원에 대한 징계성 인사 등 협상 국면에 찬물을 끼얹은 사측 조치로 “연합뉴스의 봄을 하루빨리 맞고 싶다”던 이들의 바람은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다.

새내기 파업 동참...그 한 달의 기록

33기의동참은투쟁 대오에활력을불어넣었다는 평가다.

실제 7층 사장실 앞 집회에서 발언자를 정할 때 선택의 폭이 예전보다 크게 넓어졌다. 한빛광장 야외 집회에선 파업 댄스를 한 번만 보고도 무대에 올라 바로 따라해 조합원들의 감탄을 자아내기도 했다.

이들의 존재감이 가장 두드러진 것은 지난달 16일 청운동 신세계 여자농구단 연습장에서 열린 노조 체육대회.

33기 젊은 피로 파업투쟁에 활력을

막내 조합원들이 벌인 활약이 눈부시다. 걸그룹 '시크릿'의 노래 '샤이보이'를 개사한 파업 울동과 대학교에서 벌인 파업 선전전까지, 평균연령 27.5세의 젊은 피는 연합뉴스 곳곳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파업 참여 최대 인원 기수...투쟁 대오가 세를 불렀다

오전 8시50분이 채 되기 전, 7층 사장실 앞에서 33기를 찾기로 어렵지 않다. 경찰 수습 때 일찍 일어나던 습관이 여전히 몸에 밴 탓이다. 이른 아침 집회에 막내들이 가세하면서 파업 대오는 더욱 단단해지고 있다.

33기는 32명으로 파업에 참여한 단일 기수로 최대 규모다.

한 조합원은 33기의 인원이 너무 많아서 대역섯 명정도는 집회에 빠져도 모를 지경이라며 "집회 출석률을 100%로 보이게 하는 환각효과가 있다"고 혀를 내둘렀다.

노조 집행부의 김경희 조합원은 "재기 발랄하고 귀여운 막내들 덕분에 파업 분위기도 여러모로 밝아졌다"고 전했다. 식욕왕성한 33기때문에 노조 운영비가 치솟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도시락 많이 먹어주는 게 오히려 고맙다"고 답했다.

투쟁에 새로운 바람 불다

입사 5년차인 고유선(경제부) 조합원은 33기의 동참으로 활기를 되찾았다고 평가했다. 고 조합원은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지치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가 지적하는 문제점을 실제로 겪어보지 못한 후배들이 선배를 믿고 파업에 참여한 만큼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33기가 파업에 합류하기 전까지 '재간둥이' 역할을 독차지했던 31기도 후배들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사회부 김동호 조합원은 "우리가 막내처럼 분위기를 띄웠는데 이제 팔팔한 후배들이 와서 부담을 덜었다"고 털어놓았다.

33기 파업 투쟁의 그림자

일각에서는 행사에 33기가 계속 차출되는 것이 안쓰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조합원은 "33기에게 발언을 많이 시키는데 사실 할 말이 얼마나 있겠나. 선배들이 어린 후배들을 귀여워해서 그러는 것이지만, 말주변 없는 후배가 발언에 불려 나가면 불쌍하다"고 지적했다.

증권부 한혜원 조합원은 지난달 노조 집행부로부터 언론노조 전체집회에서 파업 울동을 하라는 연락을 행사 당일에도 받기도 했다. 33기 10여 명이 여의도에 급히 모였지만, 언론노조의 사정으로 공연은 갑자기 취소됐다.

한 조합원은 "우리 울동은 쉬워 보이지만 고도의 정신 집중과 품격 있는 무대 의상이 필요하다. 앞으로는 이틀 정도라도 여유를 줬으면 좋겠다"며 '근거 없는' 자신감을 보였다.



파업 참여 첫 날 33기 조합원들이 환영 인사를 하고 있다.

☞ 1면에 이어

당시 한혜원 조합원(증권부)을 비롯한 20명으로 구성된 '파업 주니어'는 걸그룹 '시크릿'의 '샤이보이'를 개사해 깜찍 공연을 선보였다. 이들의 노래는 '말만 많고 뻔뻔한 박 사장은 연합뉴스를 위해서 그만 나가달라'라는 내용을 담았다.

한 조합원은 "파업 참여 전엔 각자 일하느라 바빠서 동기들을 볼 시간도 없었는데 공연 준비를 하며 더 돈독해졌다"고 말했다.

33기의 활약은 다른 파업 프로그램에서도 이어졌다.

명동·종각 등지에서 열린 시민 선전전에선 선배 조합원들과 함께 "연합뉴스 바로 서야 한국언론 바로 선다"고 외치며 유인물을 배포했다.

선전전에 참여한 정빛나 조합원(국제부)은 "처음엔 다소 부끄러웠지만 행인들로부터 몇 차례 외면

받으니 오기가 생겨 적극적으로 임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난달 24일 이화여대, 고려대에서 있었던 선전전에서도 한몫했다.

1~2년차 조합원 6명이 이대 학생문화관 옆 길목에 천막을 치고 파업 선전물 수백장을 대학생들에게 배포했다.

언론전공 수업에 들어가 파업을 홍보한 김지현(사회부) 새내기 조합원은 '기자의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대학생들의 요청을 개인적인 관심으로 착각하기도 했다.

고려대 선전전에 나선 박경준(정치부) 조합원은 대학생들에게 연합뉴스 파업을 알리고 언론사 취업 상담을 했다. 박 조합원은 "기자직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보니 옛날 생각이 나 가슴이 뭉클했다"며 "앞으로 후배를 자주 만나 파업홍보도 하고 취업상담도

열심히 해줄 것"이라고 다짐했다.

"함께 일터로 돌아가자"

새내기 조합원들의 파업 대오 동참으로 기존 조합원들도 힘을 얻었다.

2009년 입사한 임수정 조합원(사회부)은 "파업이 오랜 기간 지속하면서 사장실 앞 오전 집회에 나오는 사람이 다소 줄어드는 등 힘이 빠지기도 했는데 막내들이 등장해서 정말 든든했고, 미안함과 고마움이 교차했다"고 막내의 참여를 환영했다.

임미나 조합원(문화부)은 "에너지 넘치는 막내 후배들과 함께하게 돼 힘이 난다"며 "우리 모두 파업 참여를 결심하던 순간을 되새기며 앞으로 더 힘을 모아 하루빨리 투쟁을 승리로 마감하고 소중한 일터로 함께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파업 동참 한달...막내도 선배도 주머니엔 먼지만

정식 월급 한번 못 받아 재테크 적신표 33기 식탐 논란 선배들“복덩인지 빚덩인지”

정식 월급 한번 못 받아본 막내 재테크 적신표

수습기자막지를 떼자마자파업에 합류한 33기 막내들은 제대로 된 월급을 아직 받아보지 못했다. 이들은 수습 기간엔 호봉에 따라 한 달에 142~172만 원을 받았다. 정상 월급의 70% 수준이다. 파업 동참 후엔 그 이전 근무로 68~72만원을 수령했다.

이에 따라 사회초년생들이 부푼 마음으로 시작한 적금·펀드·주식투자 등재테크에 적신표가 커졌다.

33기 32명 중 16명은 경찰서 생활을 마치고 재테크에 발을 들였다. 이중 파업에 참가하면서 적금을 해약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정기 납부금액을 축소하는 등 긴축에 들어가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한 새내기 조합원은 2010년부터 50만원씩 붓던 적금을 파업과 동시에 해지했다. 부모님께 손을 벌리고 싶지 않아 생활비로 은행에서 300만원을 대출 받기까지 했다.

국제뉴스1부 윤지현 조합원은 월 34만원, 50만원씩 넣었던 연금보험과 적금을 각각 6만원, 5만원으로 대폭 축소했다.

산업부 설승은 조합원도 수습 생활이 끝나면 월 저축 금액을 3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늘릴 계획이었으나, 지난달에는 30만원조차 넣지 못했다.

정식 월급을 받게 되면 재테크를 시작하려 했으나 파업으로 이를 보류한 이들도 많다.

사회부 이슬기 조합원은 “월급의 70%를 저축해서 씨드머니(종자돈)를 만드는 것이 신입사원의 재테크 요령이라고 들었는데, 파업 참여를 결심하면서 적금과 같은 재테크는 모두 뒤로 미뤘다”고 전했다.

몇몇 조합원들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염두에 두고 있다. 실제로 한 조합원은 주말에 번역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그는 “온종일 매달리면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 사는 한 조합원은 “모아 놓은 수습 월급도 바닥이 났지만 죽어도 부모님 신세를 지고 싶지 않아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33기는 지난달 25일 월급날에 수습 때 받던 액수의 절반가량을 받았지만 그 덕에 경제적으로 아직은 견딜만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벌써 두달째 마이너스 월급을 받은 선배들을 존경의 눈길로 보고 있다.



33기 식탐 논란 선배들 “복덩인지 빚덩인지”

33기의 파업 참여 후 재정 악화를 호소하는 조합원이 급증하고 있다. ‘아프리카 흰개미’를 능가하는 33기의 식욕 때문이다.

사회부 김동호 조합원은 한빛광장 텐트설치가 있던 지난달 9일 집회일정을 마친 후 33기 김지현 조합원을 불러 “팔빙수를 사줄 테니 주변에 있는 동기들과 같이오라”고 일렀다. 이에 33기 12명이 달려왔다. 3~4인가량을 예상했던 김조합원은 아연실색했다.

김 조합원은 “그렇게 많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 순간 아찔하더라”라고 당시 소감을 전했다. 김 조합원의 지갑에서 순식간에 10만원이 빠져나갔다. 이는 자전거를 좋아하는 그가 최대 4만km 어치의 보호용 오일을 살 수 있는 돈이다.

사진부 배정현 조합원은 자동차를 사려고 2천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현재 상황을 멈춘 상태. 막내들의 술값 때문이다.

배 조합원은 “지출 비율이 높고 뭘고 없다. 교통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후배 술값이다”라고 후배들의 식성에 놀라워했다. 그는 계산을 피하려고 동기들과 가위바위보를 하거나 더 높은 기수 선배들을 부르는 꼼수를 부리기도 한다고 귀띔했다.

단, “파업이 아니었으면 만나서 친해질 일이 잘 없었을 것”이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타부서 선배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래도 마음은 찬다 - 술과 함께

보도국 기획취재팀 김보경 조합원은 33기로 인해 선배들의 고마움을 다시 깨달은 경우다.

지난달 21일 33기 후배 들을 데리고 회사 지하 태국음식점을 찾은 김 조합원은 메뉴판을 보다가 깜짝 놀랐다. 평소 선배들에게 얻어먹을 때는 몰랐는데, 막상 후배들을 데리고 와 보니 음식값이 만만치 않았던 것이다.

김 조합원은 “선배들과 밥 먹으러 가서 좀 적게 먹을 걸... 그분들께 미안하다”며 특히 늘 사비를 털어 밥을 사주던 권혁창 팀장이 가장 생각난다고 했다.

아직 꼬떡없다는 조합원도 있었다. 사회부 조성흠 조합원이다. 그는 자신이 ‘흰개미 떼’의 최대 피해자라는 설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조 조합원은 “센 척하는 게 아니라 나는 정말 문제 없다. 믿는 구석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그도 아찔한 순간은 있었다고 한다. 카드 결제일이 겹친 지난달 25일 이사를 마치고 나니 통장에 남은 돈이 없었다. 덕분에 계약금을 걸어둔 전자제품 대리점으로부터 종일 독촉 전화에 시달려야 했다. 무사히 결제를 마쳤지만 그날만큼은 그도 위기감을 느꼈다고 한다.

그러나 조 조합원은 후배들에게 “그래도 나는 괜찮다. 앞으로 더 많이 사달라고 하라”라고 당부했다.

신입사원이 파업한다고?

어딜 가나 배움에 온 힘을 쏟을 시절인 신입사원. 그런 그들이 파업에 참여한다고 하니 주변에선 각양각색의 반응이 돌아왔다.

‘남몰래 한 파업’

지난했던 경찰서 생활은 ‘수습 가족’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다. 그래서 가족들은 수습 본인만큼 정식사원이 될 날만을 손꼽아 기다린다. 같은 이유로 새내기들은 파업에 동참했다는 얘기를 꺼내기 어려웠다.

사진부 한종찬 조합원은 “어머니께 차마 말씀드리지 못했다”며 “한동안은 의심을 살까 두려워 평소 처럼 일찍 집을 나섰다”고 털어놨다.

자취를 하는 조합원은 그나마 거짓말을 하기 쉽다. 부모님께 파업 참여 사실을 숨긴 스포츠레저부 성서호 조합원은 “지난 두 달간 쏟아져 나온 내 기사

를 보고 아버지가 뿌듯해하셨다”며 “하지만 한 달째 기사가 나오질 않자 무슨 일 있느냐며 걱정 섞인 목소리로 전화하시더라”고 말했다.

“네 몸 하나 편하자고 파업하는 거 아니다”...파업 기금 쾌척

마냥 걱정하기보다 파업에 공감하는 부모님도 있었다. 모 조합원의 아버지는 평소 언론 파업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 국민일보 노조에도 일찍부터 파업 기금을 쾌척했다.

파업 이후 여유로워진 생활 덕에 어버이날 고향집을 찾은 그를 그날로 돌려세운 것도 아버지였다. 그는 “아버지가 ‘네 몸 편하자고 하는 파업이 아니다’며 다그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 조합원은 “앞으로 파업이 끝나더라도 허투루 ‘기자질’은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공정보도를 하는지 지켜볼

아버지의 서슬 퍼런 눈빛이 느껴져 간담이 서늘했다”고 농담섞인 고민을 전했다.

“네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일 것”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기에 친구란 언제고 든든하다. 새내기로서 파업에 동참한다 하니 응원 일색이었다. 사진부 박동주 조합원의 친구는 “공정보도를 위한 파업이라면 당연히 함께 해야 한다”며 “동주가 태어나서 한 일 중 가장 잘한 일”이라고 ‘무한 지지’를 보냈다.

박 조합원은 학습지 회사를 다니는 대학 동기와 일화를 소개했다. 박 조합원은 “친구 회사가 연합의 사진을 많이 쓴다고 한다. 그런데 파업이 길어지니 일이 힘들다며 빨리 현장에 돌아가라고 보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일단 파업부터 풀라는 뜻은 아니다. 박 조합원은 “제대로 된 기사를 써달라는 게 친구의 주문이다. 우리를 기다리는 이들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제자리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우지(解憂紙)

※ 해우지란? ‘해우소(解憂所)’에서 따온 말. 해우소란 사찰 화장실을 이르는 말로, 일반적으로 ‘근심을 푸는 곳’으로 통용된다



▲정치부 박경준 조합원



▲스포츠레저부 김수현 조합원



▲정치부 차병섭 조합원



▲국제뉴스3부 정빛나 조합원

◆ 파업 대오에 합류한 지 한 달이 됐다. 한 달간의 소회를 말해달라.

◇정치부 박경준(이하 박) = 파업 이후 연합뉴스 조직의 일원이라는 소속감이 커졌다. 사장 출근저지투쟁 첫날, 몸으로 느낀다는 말이 무엇인지 느꼈다. 밀리지 않으려고 부들부들 떨고, 뒤를 돌아보니 여자 선배들은 울고 있었다.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

◇국제뉴스부 정빛나(이하 정) = 수습 때와는 다르게 연합뉴스라는 조직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여진 것 같아 감회가 새롭다. 회사 동료가 아닌 선후배의 끈끈한 정이 느껴진다.

◇스포츠레저부 김수현(이하 김) = 집회 때 조별로 토론하면서 선배들 모두가 각자 자신의 몫이나 연합뉴스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생각하는 것 같아 ‘내가 정말 건전한 집단에 들어왔구나’ 싶었다.

◇정치부 차병섭(이하 차) = 파업 후 회사로 매일 출근하며 그동안 만날 기회가 적었던 선배들을 만나고, 얘기를 듣는 기회가 됐던 것 같다. 조별 토론 등을 통해 의견을 공유하고 같이 고민하는 자리가 돼 유익했다.

◆ 한달 전과 달라진 것은 무엇인가.

◇박 = 가정에서 스스로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있다. 부인은 괜찮다고 하는데 전적으로 부인의 월급에 의지해야 하니까. 매달 양가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데 파업하고 나서 미안한 마음에 우리 집에는 보내지 말자 했다. 물론 애가 셋, 넷에 훌벌이인 선배들의 고충을 생각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김 = 졸업 전 입사해 쉬는 기간이 없어 아쉬웠는데, 파업 이후 그나마 보상받는 기분이다. 반면 파

업 직전까지 잠시나마 ‘엄마론(loan)’을 끊었는데, ‘언니론’을 다시 쓰게 돼 언니한테 미안하다. 서울에서 언니와 둘이 살고 있는데, 이제 방세를 언니 대신 내가 내기로 했었다.

◆ 파업이 길어지면서 걱정되는 부분은 없다.

◇김 =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파업, 비(非)파업 선배들 사이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게 보이는 거 같아 걱정스럽다. 나 역시 지금은 파업 안 하는 분들과의 거리감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차 = 나도 감정적인 대립이 생기면 협상이 어려워질 것 같아 그 부분이 걱정된다.

◆ 개인적인 고민도 있을 것 같다.

◇정 = 건강이 고민이다. 특히 파업 이후 술자리가 늘어나 걱정된다. 지난달에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는데, 간장 질환 항목이 ‘주의 필요’로 나왔다. 술을 하루에 2잔 이하만 마시라더라. 물론 절대 불가능하다. 그래서 대신 운동을 2,3배 열심히 하고 있다.

◇박 = 나는 처가에서 압박(?)을 받고 있다. 장인이 노조나 파업에 부정적이다. 부인 눈치 보느라 집안일도 열심히 한다. 어제도 부인이 야근해서 차로 데리러가고, 부대찌개 끓여주고, 설거지를 하고, 보리차를 끓여서 손수 식혀주기까지 했다.

◆ 그래도 희망을 찾는다면.

◇박 = 비파업 선배들도 매일 노조 집회 동영상을

보면서 ‘이 자식들 이런 것도 했네’, ‘재미있네’ 등 후배들 얘기를 계속 한다더라. 후배들이 아프다고 하면 걱정도 하고. 그래서 희망을 놓지 않는다. 이틀에 한 번은 사장이 대승적 차원에서 34년간 정들었던 곳에서 혹시라도 후배들과의 감정이 깨진 부분이 있다면 통합하고 멋지게 회사를 떠나는 장면을 상상한다. 편집국을 돌면서 모든 조합원이 인사하고 사장이 손을 흔들며 떠나는 모습을. 공 선배와 포옹을 하고.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정 = 입사 초기 사장과의 대면식에서 사장이 우리에게 “여러분은 나의 후배”라고 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나는 그 말이 아직도 유효하다고 믿고 싶다. 노사 관계가 아닌 선후배 관계로 생각한다면 사장, 아니 박 선배도 후배들을 위한 가장 좋은 결정을 내리리라 생각한다.

◆ 파업 이후의 연합뉴스는.

◇차 = 공정 보도라는 가치를 가슴에 새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박 = 건전한 조직일수록 시끄러운 법이고 엔트로피가 높다는 말이 있다. 파업은 그런 면에서 ‘그냥 편하게 살자’라는 것보다 정신적으로 좋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파업 이후 일하는 데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인물탐구 공병설 노조위원장

“우리 파업은 조합원 각자의 소망 1/n씩을 모아 이룬 것”



부의 주장을그는 조목조목 반박했다.

“2003년 뉴스통신진흥법이 제정된 것은 사안의 중심을 잡고 불편부당하게 보도할 탄탄한 공영 통신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였습니다. 연합뉴스와 같이 ‘언론의 언론’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통신사가 재정적인 어려움에 빠져 자본에 휘둘리는 사태를 막기 위한거죠. 통신사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며 이익을 좇아 기사방향을 왜곡하면 제대로 된 보도가 되겠습니까?”

핵심은 법의 기본 취지를 살려내는 것이라는 얘기다.

그는 “연합뉴스 경영 전반을 관리 감독하는 뉴스통신진흥회의 이사진 7명 중 4~6명을 여권 인사로 채울 수 있어 사실상 정부가 사장 임명권을 가진 현재의 틀이 ‘공정보도’를 저해한 일부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비로소 공 위원장의 입가에 옅은 웃음이 떠올랐다.

“막내 조합원들이 파업 대오에 합류했을 때가 생각납니다. 수습기간이 끝나기는 했지만 회사 생활에 대한 부담감이 큰 상황에서 한 결정이 참 소중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사원들의 파업 참여를 우려하는 일부 목소리에 대해서는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나이에 상관없이 노동자가 권리를 보호받는 당연하고 유일한 방법은 노동조합이라는 틀 안에서 함께 뭉쳐 서로 지켜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 권리를 포기하라는 것이야말로 부당한 요구입니다.”

지난한 싸움에 고단할 법도 하다. 사측의 막무가내에 힘이 빠질 법도 하다. 그러나 그는 돌아갈 취재현장을 꿈꾸며 힘을 내고 있었다.

“현장에 돌아가면 안 써봤던 기사, 이전엔 미처 관

“원하는 기사 쓰고 다니고 싶은 회사 만들겠다는 조합원 소망 모인 것... 내 지분 있다면 그들과 똑같아”

그는 싫다 했다. 노보의 발행인이 인터뷰의 주인공이 되는 상황을 몹시 어색해했다. 마다하는 공병설 노조 위원장과 마주앉기까진 다소 시간이 걸렸다.

공 위원장을 끈질기게 회유하고 설득한 건 그에 대한 막내 조합원들의 호기심 때문이었다. 동그란 얼굴, 서글한 눈매, 그 흔한 수사 한 토막 섞지 않는 무미건조한 화법. 삭발투쟁으로 오해받는 헤어스타일 이외에는 이렇다 할 ‘투쟁 포스’나 ‘카리스마’를 찾기 어렵다. 그런 그가 창사 23년 만의 연합뉴스 총파업을 진두에서 이끌었다.

지난 2일 오후 중구 수하동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공 위원장을 만났다. 파업에 돌입한 지 딱 80일이 되는 날이었다.

“공 선배를 믿었기 때문에 파업에 참여했다”는 몇몇 조합원의 이야기를 전하며 신뢰를 끌어낸 리더십의 비결을 물었다.

어깨가 으쓱할 법도 한데 그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리더십이라는 말은 우리 파업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생·자율·자발이 적절한 표현이죠. 박정찬 사장 취임 후 편집권 침해나 인사 전횡 문제가 공공연히 드러나면서 이대로는 안된다는 내부의 기운이 꿈틀거렸습니다. 그러던 중 뉴스와이가 출범하면서 개인 의사에 대한 고려 없이 TV로 인력이 차출되고 통신기사의 질이 저하되면서 파업의 계기가 마련된 겁니다.”

‘공정보도’를 언급하는 대목에서는 목소리가 더욱단단해졌다.

국고 보조를 받으면서 정권의 입김에서 벗어나 ‘공정보도’를 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일

또 연합뉴스의 지원 재정이 결국 국민 세금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따지고 보면 연합의 주인은 정부가 아니라 납세자 국민입니다. 사실상 정부의 입김이 아닌 국민의 감시를 받아야 마땅한 것이지요. 연합이 정권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는 시민사회의 견제가 제도화 되어야 합니다.”

다소 무거워진 분위기. 말을 돌려 파업 돌입 이래 가장 기뻐던 때를 물었다.

심두지 못했던 문제를 다루어보고 싶습니다. 보직이나 연조에 관계없이 제가 쓰고 싶은 기사를 맘껏 쓰다가 조용히 물러나는 게 제 꿈이자 목표죠. 모두 저와 같이 회사에 대한 각자의 꿈이 있을 겁니다. 원하는 기사를 맘껏 쓰고 싶거나 다니고 싶은 회사를 만들고 싶다는 편집·비(非)편집 조합원의 소망, 그 1/n들이 모여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번 파업에 나의 지분이 있다면 그건 조합원 모두가 함께 나눠 가지는 딱 그 1/n만큼이라고 생각합니다.”





Pow(er) Up Trend
파업트렌드

파업 한달 동안 여가에 33기들은 무엇을 하고 지냈을까요? 그 트렌드를 살펴봤습니다.



온종일 과일만 써는 33기

사장실 앞 농성 중 가장 인기있는 소일거리는 바로 휴대전화 게임. 33기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게임은 공중에 떠오르는 과일을 칼로 베는 ‘후르츠 닌자’다. 검지 하나만 있으면 할 수 있는 단순함 때문에 순식간에 10여 명이 빠져들었다. 스포츠레저부의 김수현 조합원이 현재 기록상 1위이며 경제부 방현덕 조합원이 뒤를 쫓고 있다. 국제뉴스부 오수진 조합원, 스포츠레저부 성서호 조합원도 숨은 고수다.

방현덕 조합원은 “이 게임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기사를 쓰는 ‘손맛’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수현 조합원은 “아이폰/안드로이드 폰 모두에서 즐길 수 있다. 대결을 원한다면 누구든 환영”이라고 말했다.

거듭된 미팅 실패 원인은...

입사 초기부터 ‘지금 남자친구 없으면 결혼 못한다’는 말을 수없이 들은 33기 여성조합원. 이들에게 미팅은 소리없는 전쟁이다. 미디어과학부 김경운 조합원, 영문뉴스부 김한주 조합원, 사회부 김수진 조합원, 경기북부취재 권숙희 조합원은 작심하고 미팅에 나섰다.

이들은 매주 ‘불금(불타는 금요일)’이면 S전자 사원, G법무법인 변호사, S회계법인 회계사 등 소위 ‘잘 나가는 남자’와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거침없이 ‘소맥’을 제조한 탓에 추가 만남은 한 번도 없었다고 한 미팅관계자가 전했다.

의외의 인물이 읽은 의외의 책



평소 호전적 외모로 책과 거리가 멀어 보인 사회부 김지현 조합원은 예상을 깨고 파업 참여 한달 동안 엄청난 독서력을 자랑했다.

뉴욕타임스 기자들이 쓴 ‘당신의 계급사다리는 안전합니까?’를 비롯해 시오노 나나미의 ‘십자군 이야기’, ‘로마멸망 이후의 지중해세계’를 독파했다. 이외에도 ‘음울한 짐승’, ‘조선왕을 말하다’, ‘닥치고 정치’까지 장르를 넘나드는 지적 소화력을 보이며 주위를 놀라게 했다.

<NOBOE> 에디터선정

6월 Pow(er) Up 패션왕

상품 없음



▲문화부 이태수 조합원은 소화하기 어려운 아이템을 잘 활용했다. 스카프와 체크 무늬 스키니 등을 자칫 심심해 보이는 노조티에 연출해 아이덴티티를 살렸다. 페도라를 투쟁용 복장에 더해 손쉽게 데이트용 코디를 완성했다.

- 모자-보세 1만6천원
- 스카프-개인소장
- 바지-후아유 5만원
- 신발-호킨스 7만8천원

◀영문뉴스부 김한주 조합원은 우월한 각선미로 소녀시대를 연상케 하는 핫핑크 스키니를 무리없이 소화했다. 같은 색 헤어밴드를 이용해 봄향기 물씬 풍기는 막내 기수의 상큼함을 잘 살렸다. 빅 사이즈 노조티와 깔맞춤을 한 슈즈와 노란색 네일도 깔끔하다.

- 헤어밴드-시장표 2천원
- 스키니진-유니클로 3만9천원
- 스니커-무지 4만2천원
- 네일-가내수공업

이달 파업 패션왕의 주인공은 문화부 이태수 조합원과 영문뉴스부 김한주 조합원이 선정됐다. 페도라, 핫팬츠, 원색 스키니 등 아이템들이 돋보였지만 패션인들이 꿈은 머스트-해브-아이템은 ‘노조 티셔츠’였다. 언제 어디서나 입을 수 있는 블랙미니드레스처럼 노조티는 어떤 아이템과 매치해도 자연스럽다.



새내기들이 뽑은 파업 1개월 '말말말'



[단독]시아준수도

“연합뉴스 파업 파이팅!”

말도 많은 한 달이었다. 파업에 참여한 신입 기자들은 선배와 동기들의 재치에 깔깔대며 힘을 냈다. 하지만 최고봉은 박 사장의 때를 가리지 않는 ‘파격’언사. 베스트 어록을 1위부터 3위까지 꼽아 본다.

인기 그룹 JYJ의 멤버인 시아준수가 연합뉴스 파업을 응원했다.

4일 한 새내기 조합원에 따르면 시아준수는 지난 1일 팬 사인회에서 이 조합원에게 친필 사인을 건넸다. 사인엔 조합원 이름(모자이크)과 함께 “파업 파이팅!”이라는 문구를 적었다. 80여일째 진행되고 있는 연합뉴스 파업에 응원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이 자리에서 시아준수는 “파업 파이팅이라는 문구는 데뷔 9년 만에 처음 써본다”며 놀라워 한 것으로 전해졌다.

1위 : 박정찬 사장 “딱지를 치든지 마음대로 해!”-출근저지투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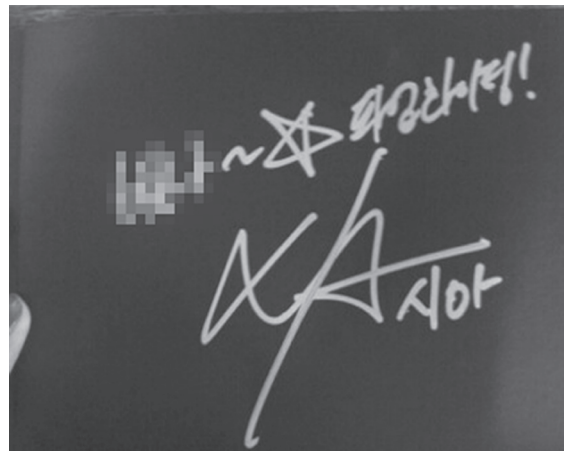
5월25일 오전 7층 사장실 앞에 도착한 박 사장은 스크럼을 짜 대오를 형성한 조합원들에게 폭언을 쏟아냈다. 그 중에도 “들어가서 딱지를 치든지 마음대로 해!”라는 발언은 노조의 파업 투쟁에 대한 박 사장의 시각을 그대로 보여줬다. 23일 있었던 노조의 ‘불공정보도 뒤집기 딱지치기’행사를 정면으로 비하한 이 발언은 조합원들에게 상처로 남았다.

2위 : 사회부 조성흠 조합원 “커피는 아무 잘못 없잖아요”-출근저지투쟁

5월25일 출근저지 대열의 맨 앞줄에 선 사회부 조성흠 조합원은 박 사장의 폭력에 갓 사온 냉커피를 희생했다. 박 사장이 조 조합원이 커피를 들고 있는 것에 시비를 걸자 조 조합원은 “아니 이건 아무 관계 없지 않습니까?”라고 반발했다. 하지만 결국 커피는 바닥에 모두 쏟아지고 말았다.

3위 : 증권부 오예진 조합원 “기사 쓰랴 대변 4시간 참았다”-막내들 자기소개

막내 기자들의 파업 참여 첫날. 이들은 자기소개를 통해 두 달 동안 홀로 현장에 있어야 했던 어려움을 털어 냈다. 증권부 오예진 조합원은 “하루는 밀려 들어오는 업무 때문에 4시간 동안 대변을 참아야 했다”고 토로해 좌중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동정

ways to get participants to complete evaluation. timing; explanation of why it's important etc.

▲산업부 설승은 조합원은 5월31일 미디어과학부 김경윤 조합원의 '곱창을 쏘겠다'는 파격 제안을 건강 상의 이유로 거절했다. 설 조합원은 “지난달 14일 한 사회부 조합원에게 팔을 물린 뒤 원인 불명의 오한과 발열이 종종 찾아온다”고 말했다.

▲정치부 차병섭 조합원은 5월30일 미용실을 찾아 변신을 시도했으나 “때가 아니다”라는 디자이너의 만류에 부딪혔다. 서울경찰청 한 관계자는 “차 조합원이 도전한 헤어스타일은 축구스타 베컴의 ‘모히칸’ ” 이라고 귀띔했다.

▲사진부 한중찬·문화부 이태수 조합원은 5월29~31일 서울 마포구 노고산에서 열린 예비군 훈련에 참석했다. 간단한 운동으로 체중 감량을 기대했으나 한 조합원은 “냉동만두를 먹고 살이 더 췌다”고 고백해 실망을 안겨줬다.

▲사회부 김수진 조합원은 지난 2일 서울 마포구 모처에서 한 남성과 첫 만남을 가졌다. 만남은 경기북부 권속회 조합원이 주선했다. 김 조합원은 재 만남 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부 김아람·국제뉴스부 오수진 조합원은 5월25~26일 부산을 찾았다. 부산취재본부 차근호 조합원은 미팅도 미루고 시트 비닐도 뜯지 않은 새 차 ‘투싼’으로 세 여성 조합원에게 봉사했다.

establish a partnership with a body within state indicators and - make it a



지방국 지방취재본부 막내 조합원들의 소회를 담았습니다.

“허전함 느끼지만...결에서 항상 응원”

연합뉴스 파업 장기화에 충북지역 사회구성원들의 격려와 충고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17일 청주시의 한 카페에서는 연합뉴스 기자 등 파업 언론사 종사자들과 지역 시민단체 회원들이 모여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한 시민단체의 관계자는 “연합뉴스의 파업으로 지역 현안이 묻혀 안타깝다”며 파업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을 나타냈다.

그럼에도 “이번 파업으로 연합뉴스가 언론 본연의 역할을 되찾고 있다”며 “항상 애정을 갖고 결에서 연합뉴스를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를 향한 지역 언론사 선·후배들의 관심 또한 여전하다.

지난달 19일 충북기자협회 주최의 체육대회에 참여한 연합뉴스 충북취재본부의 노조원들은 이들로 부터 많은 격려와 지지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지역일간지 D일보의 이모(30) 기자는 “연합뉴스의 빈자리가 새삼 크게 다가온다”며 “현장에 빨리 돌아오길 바란다”고 밝혔다. / 충북취재본부 김형우

“홀어지면 죽는다. 흔들려도~”

상경해 처음 파업에 참여한 날 파업가를 몰라 입만 병긋거리던 기억이 납니다.

파업 한 달. 내려받아 간간이 들던 파업가를 이제는 가사 없이도 끝까지 부를 수 있게 된 시간입니다.

그동안 많이 생각했습니다.

파업 참여 여부를 떠나 양측 모두 연합뉴스에 대한 애사심이 깊고 서로를 신뢰함을 느꼈습니다.

“파업 중이라 힘들다고 해서 절대 기죽지 마라”(16일 본부 전체회식에서 비(非)파업선배가 파업참여 선배에게)

“선배들, 좋은 분이다. 뒤끝 절대 없으니 걱정 마라”(29일 파업 참여 조합원 회의에서)

회사를 위하는 노선은 다르지만 서로를 신뢰하는 모습을 느끼며 연합뉴스에 입사하기 참 좋았다는 생각을 몇 번이고 했습니다.

파업 석 달째. 선배들은 힘든 상황을 애써 유머로 승화해 봅니다.

“모이면 돈 드니 카톡으로 회의합시다”, “오늘부터 더치페이입니다”

그러면서도 혹시나 후배들이 지갑을 열세라 앞서서 먼저 나가 후다닥 계산을 해버립니다.

회의 중간마다 육아와 가사 문제를 논하는 선배들의 모습이 낯설게 여겨졌습니다.

어느덧 그 장면은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소주 한 잔과 함께 털어 넘기는 선배들의 고민을 발견하며 철없던 후배의 마음이 무거워져 갑니다.

선배들힘내세요. 존경합니다. / 부산취재본부차근호

이것도 기자수업이라면.

기자수업, 수습생활이 끝나갈 때쯤 기자협회 연합뉴스지회에서 선물로 준 책의 제목입니다.

33기가 파업에 동참한 지 한 달이 넘어가는 지금,

저는 책에 나오지 않는 가장 혹독한 수업을 받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인천 발령을 받고 정기자가 되었음에도 인천에 대해 전할 소식이 아직 없습니다.

이런 제가 전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의 다짐과 근황입니다.

매일 가진 못하지만 사장실 앞 복도에서 투쟁하는 많은 선배와 동기들을 마주할 때마다 저는 기사 대신 마음속에 ‘초심’을 쓰고 있습니다.

더욱 단단한 기자가 되기 위한 과정이라고 믿기에 즐거운 마음으로 이 수업에 임합니다.

아프신 할머니께 물질적인 선물은 드리지 못하지만 수발을 들며 파업기간을 후회없이 보내고자 합니다.

몇몇 선배는 혀를 차며 33기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제 눈에는 어느 때보다 즐거운 표정의 동기들 얼굴이 보입니다.

초년부터 이런 방식의 기자수업을 받는 이들이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워보입니다.

특별한 수업은 머리가 아닌 가슴에 남는 법이니까요. 선배들, 동기들 파이팅입니다. / 인천취재본부 윤태현

한 시민의 전화

지난 5월 중순 오전 1시께 파업 참여 2주차인 김선형 씨는 전화 한 통을 받는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남성의 목소리는 이미 만취. 매일 연합뉴스 기사를 챙겨보는 대구의 한 시민이라고 자신을 밝힌 그는 ‘언론사가 파업하면 시민들은 어떡하느냐’라며 언성을 높인다. 이어 ‘길어지는 파업에 시민의 가슴 역시 미어진다’고 했다. 김씨가 시민의 관심에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기도 전에 다른 남성이 전화를 받아 들고 ‘이 사람이 지금 많이 취했다’며 전화를 끊어버린다.

잠결의 김씨는 이날 시민의 시선을 느끼게 된다. 지인들에게 공정보도를 설파하며 파업 참여를 알릴 때도, 집회에서 들고 있던 카메라의 연합뉴스 이름표를 떼어낼 때도 느끼지 못했던 눈빛이다.

내심 잘 알지도 못한다는 미명으로 한 발짝 물러나 있었다. 그랬던 마음에 시민의 이목이 더해진다. 하루빨리 그 관심 속으로 복귀하길 원한다. / 대구경북 취재본부 김선형

지역으로부터의 편지

“신문을 거의 보지 않는다!” 광주전남취재본부의 한 선배는 사장실 앞에서 신문을 뒤적이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수엑스포, 5·18 등 놓치기 싫었던 현장의 타사 기사를 보기 괴롭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5·18 즈음 그 선배는 “10여 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은 현장을 똑딱이 카메라라도 들고 ‘기록’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괴로운 하루를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기록. 과거 누군가의 기록은 과거에 반추해 현재를 살아가는 이의 동력이 됩니다. 현장을 비운 안타까움은 모두가 같을 것입니다.

이번 파업으로 우리는 언젠가 역사로서의 지금을

떠올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미래의 연합인들과 언론인들에게 다른 기록을 남기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대학시절 외로운 싸움에 지칠 때면 새벽 버스에 몸을 실어 안개가 피어오르는 망월동 구묘역을 찾곤 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외로운 싸움을 멈추지 않았다는 다른 이가 있었다는 사실에 위로 받았습니다.

어느 때보다 ‘단결’이 필요한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긴 싸움에 지칠 때면 지역을 찾아주십시오.

두 팔 벌려 역사를 함께 만들어가는 동지가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광주전남취재본부 박철홍

〈상상발명〉 이런 물건, 파업 기간엔 필요하다!

1. 순간이동엘리베이터

투쟁 의지가 아무리 높아도 물리적 거리 극복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런 기술쯤은, 꼭 있었으면 한다. 바로 ‘순간이동 엘리베이터’! 조합원들 각자 지역본부 엘리베이터에 탑승한다. 그러면 서울 중구 수하동 센터원빌딩 7층 사장실 앞으로 ‘뽕’하고 가는 거다. 출근저지투쟁!

2. 파업중전화응답기

아무래도 지방 취재원들은 언론사 파업에 대한 이해도가 서울보다 낮다. 여유가 있을 땐 취재원들에게 지금 기사를 안 쓰는 이유를 설명하면 된다. 문제는 그러지 못할 때가 더 많다는 것. 이럴 때 본인처럼 파업 ‘야마’를 확실히 설명해 주는 전화응답기가 있으면 좋겠다. 연합뉴스 바로서야, 한국언론 바로선다!

3. 도깨비방망이

입기만 해도 파업 열기가 불타오르는(?) 노조 특별 제작 파업티셔츠. 아직 입어보지 못한 조합원들이 많다. 동화 속 도깨비방망이가 똑딱, 똑딱 그 자리에서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저기 멕시코시티에서, 제주도에서 파업티셔츠를 입은 그가 보고 싶다. / 경기북부취재본부 권숙희

‘공정보도=연합뉴스’그날까지!

제가 제주 본부에 온 지 일주일 후, 고향에 채 적응하기도 전에 조용하고 평화롭던 제주가 강정 해군기지 문제로 시끄러워졌습니다.

한 번의 일주일의 더 흐른 후, 연합뉴스 파업이 시작됐습니다.

유례없이 바쁜 상황에 파업 여파가 더해져 업무강도는 경찰수습 시절을 떠올릴 정도였지만, 정작 힘든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해군기지 반대 측 활동가들이 제 카메라나 노트북에 붙은 연합뉴스 스티커를 보며 “연합 파업한 다더니, 왜 왔어요?”라고 하는, 질문을 가장한 비난에 일일이 해명하는 일입니다.

집회 현장 길바닥에 주저앉아 기사를 쓰다 들은 차가운 한 마디는 그 무엇보다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이번 파업 이후, 시민들이 카메라며 노트북에 붙은 연합뉴스 스티커를 반겨주길 바랍니다.

연합뉴스, 하면 공정보도가 떠오르게 되는 그날이 오길 기다립니다. / 제주취재본부 전지혜